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서비스

-한.중.일 농수산물유통 탄소중립무역거래 사업-

한국경제 TV

소이바그룹, 라이베리아 공화국과 농수산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MOU 체결

입력 2024-06-12 15:04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 라이베리아 조지프 보아카이 대통령, 국가 투자위원회 제프블리보 장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에는 라이베리아의 농수산물식품 산업단지 토지 제공, 산업단지 통신사업권 제공, 산업단지 투자은행 사업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의 소이바그룹 글로벌 탄소거래소 투자를 기반으로 라이베리아에 소이바 산업단지가 출범하게 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소이바 산업단지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에 지속가능한 저탄소 글로벌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양국간 소이바 탄소저감 인증을 받은 농수산식품의 저탄소경제의 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은 특히 K-푸드의 아프리카 수출을 통하여 한국과 아프리카 농수산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양국간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통한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구를 살리는 사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소이바그룹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라이베리아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간의 영어 기반 콜센터를 라이베리아에 구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식 영어 지원이 가능하고, 국토의 시간대가 미국 동부와 가깝다.

소이바그룹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 다음 세대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1 만여 개 탄소거래소 사업을 글로벌로 추진하여 국내에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많은 소이바그룹의 비즈니스 영역중에 주목을 끄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소이바 탄소중립 교육사업이다. 소이바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필드를 협약된 한국 교회에게 제공하게 되고, 한국 교회는 글로벌 기업에게 소이바 저탄소 먹거리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교육 수익이 발생하고, 저탄소 먹거리 교육 제공으로 신도 숫자의 증가와 이를 통한 국내외 복음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2024 년 소이바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글로벌로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 월에 중국 국가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녹색연맹회장과 협약했고, 5 월에 한중일 탄소중립 서비스로 한중일 크루즈 관광 융합교류 서비스를 발표했다. 또한 5 월에 한국, 미국, 베트남 3 국간 탄소중립 서비스로 글로벌 탄소중립 융합교육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소이바그룹 관계자는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거래소 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자체와 단체, 협회들에게 글로벌 시장 선도는 물론 상생하며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선데이

소이바 R&D, 중국 국가 탄소중립 총괄기관(녹색연맹)과 탄소중립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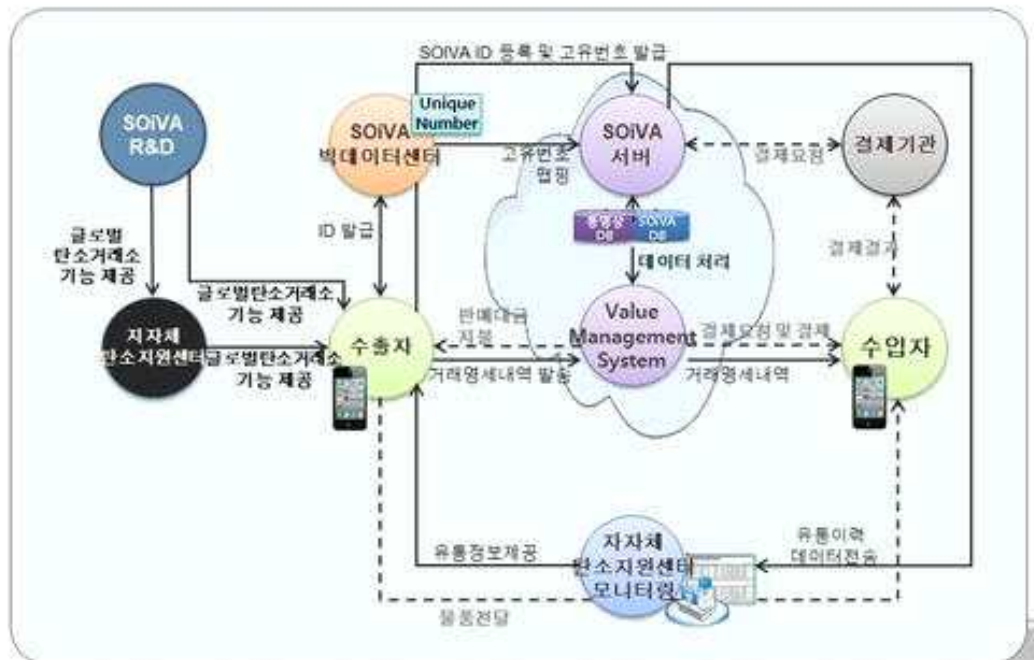


5 월 14 일 오후 2 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탄소중립 시스템 서비스 발대식

소이바 R&D 는 지난 3 월 2 일 중국 국가탄소중립총괄기관(녹색연맹) 본사의 송우연 회장과 소이바 김상용 회장이 탄소중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소이바 R&D 는 2024 년 내에 사업을 진행해왔던 한국, 미국, 베트남, 중국은 물론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몽골과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하는 한국 민간주도 글로벌 탄소중립 서비스를 출범하고 있다.

소이바 R&D 는 지난 5 월 14 일 오후 2 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스템 서비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동안 전국에서 함께한 지역 파트너들 약 150 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강의와 질의 등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Global 탄소중립 시스템 서비스 BANK



소이바 R&D 탄소중립 시스템 서비스 BANK 도표

또한, 소이바는 오는 5 월 25 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 맞추어, 5 월 24 일 오후 2 시에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회의장에서 다자간 글로벌 탄소중립 교환투자 무역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지자체 탄소지원센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상용 회장은 "소이바는 국내 탄소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탄소거래소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과기정통부는 2024 년 전략맵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융합한 양방향 동영상 국제표준화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소이바 R&D 의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

韓·日 민간 주도 탄소중립 해양관광 경제교류 서비스 출범

2024.05.23. 오후 4:34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크루즈선박여행 기반 탄소중립 해양관광 경제교류 발표



이달 26 일~27 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일본·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간 탄소중립 해양관광 경제교류가 출범한다.

소이바 R&D 는내일(24 일) 오후 2 시,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일본 간 대형크루즈
선박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한·일 탄소중립 해양관광 경제교류를
발표한다.

기존 한·일 크루즈는 개인이 자비로 부담하는 관광여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한일 간 소이바서비스는 대형크루즈 선박여행을 세계최초로 무상제공하는 한국·일본 간 탄소중립 해양관광 경제교류 서비스이다.

기본조건은 소이바 탄소중립서비스 카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카드는 소이바서비스 비즈니스그룹이 교류협력의 이용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소이바 R&D 관계자는 7월부터 매달 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국, 중동, 미국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이바 크루즈 선박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서비스에 참여하는 글로벌 각나라, 각지역은 소이바 탄소중립 서비스로 융합된 초거대 시장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참여 국가는 물론 각도시까지 지속적인 경제효과를 제공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소이바R&D 김상용회장은 “한일 탄소중립 해양관광 융합경제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여러도시를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며 "소이바 대면 양방향 탄소중립 비즈니스 인증을 통해, 크루즈 선박에서 즐거운 여행을 하면서 소이바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요서울 | 장휘경 기자]

소이바 R&D, 한국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사업 주도



1)

지난 2024 년 3 월 2 일 중국 국가 녹색연맹 본사의 송우연 회장과
소이바 김상용 회장(앞의 좌측)의 계약체결 장면

소이바 R&D 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을 글로벌 허브 국가로 만드는 글로벌 소이바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정보서비스 기술표준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거버넌스 기술표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이바는 지난 3 월 29 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 서비스를 위한 융합빅데이터 교육훈련 추진 발대식을 했다. 이 발대식을 통해 한국 1 천만 시니어들에게 소이바 글로벌 모니터링 일자리 제공과 한국 1 천만 청년들에게 소이바 융합 일자리 제공, 한국 1 천만 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발대식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3 월 29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건물 대강당에서 개최된 소이바 김상용 회장과 한국노총 전국 시니어 노조 공동 발대식 행사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이바는 먼저 강원도 원주를 기점으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대규모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소이바는 국토연구원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사업팀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이바 R&D 는 2024 년 3 월 2 일 중국 국가탄소중립총괄기관(녹색연맹)과 한화 30 조원 규모 탄소중립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 년 3 월 3 일에는 중국 안후이성 허베이시에 있는 중국 안후이성 룡티엔 그룹기업과 한화 1 조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중국 안후이성 허베이시정부가 2024 년 4 월 15 일에 강원도청 및 원주시를 방문하도록 협업했다.

소이바 R&D 는 원주시에 약 111 만평 이상 되는 규모로 소이바 글로벌 융합문화복지도시에 5000 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탄소거래소 금융산업, 글로벌 시니어 일자리창출산업, 글로벌 시니어 건강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이바 김상용 회장은“과기정통부 전략맵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거버넌스 글로벌 표준화 추진 성공 사례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공공정보서비스 SOIVA 기술표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동안의 사업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김상용 회장은“이를 통해 과기정통부 국가 빅데이터를 융합해 2024 년 하반기에 소이바 글로벌 융합빅데이터 센터 설립 및 글로벌 탄소중립 서비스 등으로 국내외에서 B5G6G 서비스를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금융경제신문=장용준 기자

소이바 R&D, 미국 하와이에 글로벌 탄소거래소 사업 투자 본격화

미국· 한국· 베트남 에서 글로벌 탄소거래소 운영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거래소 하와이 유치, 설립 관련 기념사진. (왼쪽부터) 하와이 호놀룰루 시정부의회 칼빈세이 하원위원장, 하와이 소이바 제니스 고 CEO, 하와이 주정부의회 사무엘 공 하원의원. 사진=소이바

한국 소이바 R&D 그룹이 미국 하와이에 설립될 글로벌 탄소중립거래소에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다.

7일 한국 소이바 R&D 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제 10 회 미국-한국-베트남 3 국간의 디지털경제 포럼을 주최한 하와이 주정부는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거래소를 하와이에 유치,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소이바 본사와 하와이 소이바 지사는 글로벌 탄소 거래소 하와이 설립을 위해 1 억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와이 계약은 미국 측에서 50% 투자하고, 한국 측에서 50% 투자하는 형식이다.

소이바는 이달 말 한국에서 운영될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설립 계약을 미국 측에서 50%를 투자하고, 한국 측에서 50% 투자하는 내용으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 내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측은 자국내 달러 외환을 손해 보지 않는 공평한 계약을 하게 되며, 소이바는 양방향 지속가능한 친환경 글로벌 경제서비스를 구현하게 된다.

소이바 하와이 탄소중립거래소는 양방향 탄소중립 농산물 유통 시스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탄소중립에 특화된 거래소로, 하와이를 포함하여 베트남에도 글로벌 해양수산 탄소중립 경제발전 모델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이바 측은 국토의 3 면이 바다인 한국이 해양수산 탄소중립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축에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89 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인데 대부분이 바다에 인접한 곳으로, 이곳의 인구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수소 에너지기술을 강조하면서 상호 각국이 공유하고, 소이바 탄소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수출 무역 거래의 글로벌 신규 시장을 만들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김상용 소이바 회장은“지자체 기반으로 대규모 탄소거래소 허브 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미국 1000 여개 레질리언스 커뮤니티 단체들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이는 금융, 건강, 교육, 반도체, 정보통신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B5G6G 사업”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소이바와 같은 한국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적 이해도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이바(SOIVA) 기술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공통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공공정보서비스 표준기술이고,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거버넌스) 양방향 서비스 표준 기술이다.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 무역투자 기반 교환 서비스

■ 전세계 양방향 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미국 하와이에서 소이바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발표 자료. 사진=소이바

한국 소이바 R&D 그룹은 2021년 12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3개국 디지털 경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신산업 성장기반을 설계하고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전략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이바 클라우드 컴퓨팅 양방향 융합서비스를 국제 표준화 사업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모델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글로벌 저탄소 홍보대사로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 위촉

기자명 장휘경 기자 입력 2024.06.14 15:43

-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탄소중립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공사와 글로벌 협력 도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오른쪽),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왼쪽)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오른쪽),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왼쪽)

[일요서울 | 장휘경 기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3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김상용 소이바그룹 회장을 글로벌 저탄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소이바그룹은 그동안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시스템 및 서비스를 주력해왔고, 공사와는 국내 지자체들과 대규모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글로벌 K-푸드 수출사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K-푸드 수출사업은 단순한 수출입 유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산 유통 소비를 위한 한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공급망 구축을 의미한다.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서비스 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원이다. 소이바그룹은 과기정통부 2024년 전략맵 클라우드

컴퓨팅 거버넌스 양방향 동영상 서비스로 한국과 미국간, 한국과 중국간에 글로벌 탄소중립 거래소 시스템과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다.

소이바그룹은 또한 지난 7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라이베리아 공화국 조지프 보아카이 대통령, 국가 투자위원회 제프블리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서비스를 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에서부터) 라이베리아 공화국 조지프 보아카이 대통령,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소이바그룹 오과칠 이사,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

▲(왼쪽에서부터) 라이베리아 공화국 조지프 보아카이 대통령,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소이바그룹 오과칠 이사, 소이바그룹 김상용 회장

이 협약식 행사에 앞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김춘진 사장)와 라이베리아 공화국(국가 투자위원회 제프 블리보 장관) 간의 협약식도 진행됐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저탄소 먹거리 서비스 기업인 김상용 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 한국 지자체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더욱 협력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용 회장은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해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등과 함께, 공사의 농식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협력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